

## 附加價值生産성과 附加價值稅

鄭 俊 秀\*

### 目 次

- |                          |                                  |
|--------------------------|----------------------------------|
| I. 問題의 提起                | Ⅲ. 經營管理를 위한 附加價<br>值關聯指標와 그 計算方式 |
| II. 日本企業의 附加價值計算<br>實施現況 | IV. 結 言                          |

### I. 問題의 提起

1977年度에 들어서면서 世界各國이 앞을 다투어 經濟水域 200海里를 宣稱하고 있으며 또한 今年 7月 1日부터 內國稅利改革의 一環으로서 附加價值稅制가 實施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事實로 인하여 우리나라 水産業界는 直·間接적으로 國內外의 經濟的 環境變化를 實感하지 않을 수 없다.

附加價值稅制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것이 처음으로 實施되는 稅制이기 때문에 租稅當局의 立場에서는 政策的 또는 施行上의 誤謬가 있을 수 있고, 또한 水産經營體의 立場에서는 새로운 稅法에 대한 認識과 理解不足으로 實務上의 애로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水産經營者의 當面課題는 附加價值稅法을 보다 正確하게 理解하고 消化시켜 會計實務에 適用함으로써, 稅務上의 不利益이 招來되지 않도록 對備하는 것이다.

附加價值稅制의 實施에 따라 水産經營體를 포함한 모든 企業이 우선 現實的인 利害關係를 가진 稅法 및 稅制運營에 깊은 關心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하나, 附加價值 그 計算과 分析이 가지는 經營管理上의 本來的 價値를 看過하고 있는 데는 커다란 問題點이 있다. 원래 附加價值란 企業이 生産的 努力에 의해 創造한 眞實한 意味에 있어서의 經營成果이며, 이것은 發生主義 會計下에서 企業利益의 基礎를 이루는 同時에 從業員에 대한 分配의 源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附加價値는 經營管理에 있어 극히 重要的 指標가 되는 것으로, 本稿는 다음과 같은 內容을 증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 II. 日本企業의 附加價值計算 實施現況

### III. 經營管理를 위한 附加價值關聯指標와 그 計算方式

### IV. 結 言

이상과 같은 이웃 先進國인 日本의 附加價值計算의 現實과 日本學界에서 提示하고 있는 그 關聯指標를 紹介함으로써 附加價值稅制의 施行을 契機로 우리나라의 水産經營者들이 他産業에 앞서서 附加價

\*釜山水産大學教授, 公認會計士

值計算과 分析制度를 導入하여 積極的인 자세로서 經營管理에 임하는데 參考資料가 되었으면 한다.

## II. 日本企業의 附加價值計算 實施現況

附加價值란 원래 國民經濟學에서 사용하던 概念으로, 즉 1921년경 第1次 世界大戰의 賠償問題에 관련해서 獨逸에서 附加價值計算이 行하여졌고 뒤이어 프랑스 영국등의 유럽諸國에서도 行해졌다. 그후 附加價值計算이 國民經濟의 水準에서 個別經濟인 企業의 水準에도 導入되어져 美國 日本 등의 國家에서 利用하기 시작했다.

本章에서는 1973年 日本會計研究學會 第31回 大會에서 나카하라(中原)教授가 발표한 「企業附加價值計算의 實狀概觀」<sup>1)</sup>을 통해서 日本企業의 附加價值計算을 實施하고 있는 現況을 살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필요한 곳에서 私見을 表明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나라 附加價值計算實施를 위한 方向을 검토하기로 한다.

### 1. 附加價值計算의 導入에 影響을 준 機關 및 其他

日本 企業의 附加價值計算導入은 大藏省에서 附加價值計算方式을 發表한 1948년에 機械産業의 分野에서 부터 이루어졌다. 그후 附加價值分析을 導入하는 企業체의 數가 계속적으로 增加하다가 1960年에서 1965年에 걸쳐 統計的으로 상당한 숫자의 增加를 보였다. 이 期間동안에 三菱經濟研究所와 日本生産性本部가 附加價值에 관한 統計를 發表함으로써 附加價值計算方式을 確立하는데 공헌하였다. 附加價值計算에 관한 文獻으로서는 195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959年 以後에 상당히 많은 책들이 發刊되었다.<sup>2)</sup> 특히 1969년에는 日本經濟人聯合會에서 發刊한 「賃金決定에 있어서의 生産性 基準原理의 解説」이라는 報告書가 傘下 各 企業체에 附加價值를 計算하도록 많은 影響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以上과 같이 日本企業에서 附加價值計算이 定着化되기까지는 學界를 비롯하여 金融界 政府 등의 機關에서 많은 研究을 하였고, 이것이 企業의 實務的인 指針이 되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企業이 自發的인 受容態勢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學界 및 金融界 水協中央會 政府 등의 機關에서 많은 研究가 先行的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 2. 附加價值計算의 目的과 概念

企業에 있어서의 附加價值計算의 目的은 ① 經營管理 특히 從業員管理를 中心으로 한 管理目的과 ② 附加價值의 配分目的으로 大別된다. 그런데 나카하라教授가 實施한 日本의 附加價值에 관한 調査對象業체 1,322個 會社中 56%에 달하는 737個社의 回答을 통하여 附加價值計算의 目的을 分析한 結果를 보면 다음의 <表一1>과 같다.

- 1) 日本會計學會編: 「會計」 森山書店, 1973. pp. 19~37
- 2) 現在에 購入 가능한 日本의 附加價值에 관한 書籍은 다음과 같다.
  - 竹山正憲著: 「附加價值經營」, 日本法令樣式販賣所
  - 竹山正憲著: 「附加價值經營의 すすめ方」, 經林書房
  - 今坂朔久著: 「附加價值生産性と 成果配分」, 中央經濟社
  - 後藤弘著: 「附加價值分析入門」, 日本能率協會
  - 〃: 「附加價值分析」, 〃
  - 〃: 「實例附加價值分析」, 〃

附加價值生産성과 附加價值稅

〈表-1〉

區 分	經營管理目的	配 分 目 的	其 他	計
會 社 數	318	58	75	451
比 率	70%	14%	16%	100%

즉 回答業체 중 70%의 企業이 經營管理에 主目的을 두고 附加價值를 計算하고 있으며 配分目的을 들고 있는 企業은 14%에 不過하다. 그러나 企業이 配分目的에 重點을 두는 理由로써 「將來에 支出 可能한 勞務費의 算定」을 통해 젊은 勞動者들을 確保하려는데 있음은 船員 確保에 不安을 느끼고 있는 水産業界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바가 클 것으로 믿는다.

經營管理를 附加價值計算의 目的으로 하는 會社중에서 41%에 달하는 企業체가 能率測定을 中心으로 하는 從業員管理에 그 目的의 重點을 두고 있다. 바꾸어 말해서 勞動生産性を 높이기 위해 附加價值를 計算한다는 것이다. 그외의 59%는 業績測定 經營分析 利益管理의 經營計劃策定을 들고 있는데, 이와 같이 附加價值計算을 多角的으로 經營管理에 利用하고 있는 點을 우리는 주시해야겠다. 이것은 回答業체의 61.4%(737個社中 451個社)에 해당하는 企業체가 附加價值計算을 實施하고 있고, 그 業체의 70%가 經營管理自的 등에 이를 利用하고 있다는 點은 이제라도 水産業經營者가 깊이 생각해 볼 點이다.

附加價値의 概念에 대해서는 附加價置를 ① 各企業의 社會的 生産의 貢獻度를 나타내는 指標라는 主張과 ② 各企業의 維持發展을 나타내는 指標로서 利益의 一種이라는 主張이 있다. 回答 會社의 52%가 利益의 一種이라는 概念을 支持하고 있음은 다음 〈表-2〉를 參照함으로써 알 수 있다.

〈表-2〉

區 分	利益의 一種	社會的 生産의 貢獻度	양 쪽 모 두	計
會 社 數	278	158	15	451
比 率	62%	35%	3%	100%

요컨대 日本企業의 大部分은 附加價值計算을 企業損益計算의 一過程으로 理解함으로써 附加價值를 重要한 會計情報로 認識하고 있다. 이 점 역시 附加價值를 稅金과 結付시켜 새삼스럽게 認識하게 될 우리의 立場과는 대조적이다.

3. 附加價値의 計算構造

企業의 附加價値는 基本的으로 다음과 같은 公式에 의해 計算된다.

$$\text{附加價値} = \text{總產出額} - \text{外部購入價値} (= \text{前給付原價})$$

그러나 具體的인 計算方法으로 加算法과 控除法이 있는데, 日本의 各機關에 따라 그 方法을 다음과 같이 달리하고 있는 點에 주의해야겠다.

〈三菱經濟研究所 方式〉

$$\text{人件費} + \text{賃借料} + \text{減價償却費} + \text{金融費用} + \text{租稅公課} + \text{法人稅充當額} + \text{可處分純利益} = \text{附加價値}$$

수 산 경 영 른 집

但, 人件費=任員報酬手當+從業員給料手當

法人稅充當額=法人稅 및 住民稅充當額

可處分純利益=純利益+利益剩餘金調整額

〈大藏省方式〉

任員給料手當+從業員給料手當+福利費+動産·不動産賃借料+支給利子·割引料+營業純益(營業利益-支給利子·割引料)+租稅公課=賣出額+固定資産對替額-使用者費用=附加價值

〈日本銀行方式〉

當期純利益+人件費+金融費用+租稅公課+減價償却費=附加價值

但, 人件費=任員給料手當+事務員給料手當

〈通産省 企業局方式〉

實質金融費用(金融費用-金融收益)+稅控除後當期純利益+人件費+租稅公課+當期減價償却費=附加價值

〈通産省 工業統計局方式〉

修正生産額-原材料費-外注加工費-純賣出額에 포함되는 內國消費稅額-減價償却額=附加價值

但, 修正生産額=純賣出額+(期末製品-期初製品)+(期末半製品 및 在工品-期初半製品 및 在工品)

〈生産性本部方式〉

純賣出額-(原材料費+外注加工費+支給經費+減價償却費)-期初製品-期末製品±附加價值調整額

=勞動收益+營業利益=附加價值

但, 支給經費=(販賣費 및 一般管理費+當期總製造費用中的 經費)-(勞動收益에 加算되는 部分+減價償却費)

附加價值調整額=賣出額 또는 賣出原價의 修正額(他計定對替額, 原價差額 등)

前述한 諸方法中에서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3%에 해당되는 283個社가 日本銀行方式을 支持하고 있다. 이 方法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學者들에 의한 批判이<sup>8)</sup> 없는 것이 아니라 實際로 이 方法을 많이 準用하고 있음에는 注目할 價値가 있다. 附加價值算定方式을 統一한다는 것은 同一企業內的 期間比較와 企業相互間의 比較를 可能케 해주는 것이므로 크게 有益하다. 따라서 理論的으로 妥當하면서도 實務에서 다같이 利用할 統一된 方式을 우리도 구해야 할 것이다.

〈表-3〉

區 分	三菱經濟研究所	大藏省	日 銀	通産省 企業局	通産省 工業統計局	生産性 本部	獨自의 方式	其 他	計
會 社 數	19	20	283	16	7	20	33	53	451
比 率	4%	4%	63%	3%	1%	4%	7%	12%	100%

3) 이것은 減價償却의 取扱을 둘러싼 見解의 差異로 인한 批判이다. 즉 日銀方式은 減價償却費를 附加價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批判者들은 投下資本回收額으로 把握하고 이것을 外來價值額으로 前給付原價에 加算함으로써 附加價值에 包含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 附加價值生産성과 附加價值稅

### 4. 附加價值計算의 計算單位

計算單位로서는 ①企業全體 ②部·課·事業部·工場別로 細分化한 部分組織을 들 수 있다. 回答會社의 67.7%가 會社全體로서 附加價值를 計算하고 있고 나머지 32.3%가 集團企業, 部·課·事業部 個人·製品別로 計算한다. 특히 部·課·事務部·個人의 細分化된 計算을 實施하는 會社는 約 3%에 해당한다.

아직 附加價值的 計算과 分析을 제대로 導入 못하고 있는 經營체가 대부분인 우리 현실에서 企業全體의 計算마저 아쉬운 단계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漁船別, 漁期別分析과 같이 細分된 分析을 기대할 수 있다.

### 5. 附加價值的 報告對象

經營管理目的으로 附加價值를 計算하고 있으므로 報告對象의 主는 經營者가 되는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教授가 實施한 調査의 結果로 역시 그러하다. 다만 注意를 喚起시키고 싶은 것은 經營者以外的 報告對象者로서는 從業員이 壓倒的으로 많다는 事實이다. 그 理由는 企業이 經營成果中 妥當한 分配分으로서의 賃金資料를 提示하고 勞使關係의 調整 圓滑化를 避하기 위해서 從業員에게 報告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의 問題로서 賃金(固定給問題를 包含) 船員退職金 등의 人件費를 中心으로 일고 있는 勞使間의 分爭, 將來의 問題로서 勞動力需給에 관한 不安感 등의 골치거리를 안고 있는 水産經營체로서 附加價值에 관한 情報를 船員들에게도 알려 바람직한 勞使關係를 確立하고 改善하는 方案도 미리 생각해 볼 단계로 생각된다.

### 6. 附加價值計算의 期間

企業의 附加價值的 計算期間은 主로 會計期間과 一致시켜 調査回答體의 84%의 企業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나머지 16%의 企業은 主로 1個月單位의 原價計算期間과 一致시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附加價值計算單位 및 期間은 水産經營體의 規模 必要 등에 따라 適切히 選擇하면 되는 것으로 費用·便益의 分析을 통해 앞으로 解決할 問題이다.

## Ⅲ. 經營管理을 위한 附加價值關聯 指標와 그 計算方式

前述한바 있듯이 日本의 企業에서는 附加價值를 計算하는 目的을 經營管理에 두고 있다. 바꾸어 말해서 附加價值的 計算을 通해서 投入費用과 產出成果를 比較하여 生産性 내지 效率을 높여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單純한 附加價值的 計算에 만족하지 않고 약간의 努力을 追加함으로써 生産關聯指標와 分配關聯指標를 얻을 수 있으므로 經營管理에 더욱 積極的으로 利用할 수 있다.

이러한 實務界의 必要에 맞추어 日本 附加價值會計特別委員會에서 1976年 6월에 第3回 報告로서 ①經營管理 ②經營計劃 ③經營統利에의 이용을 위한 附加價值關聯指標의 算定方式을 發表하였다.<sup>4)</sup> 이 報告書중 經營管理를 위한 項目만을 紹介함으로써 우리 나라 水産經營體의 附加價值分析의 導入에 一助하고자 한다. 바꾸어 말해서 수없이 나열된 分析方法中 有益하게 이용될 수 있는 關聯指標를 提示한다는 것은 体系的인 分析을 可能케 하여 그 導入을 促進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經營管理를 위한 附加價值關聯指標는 生産關聯指標와 分配關聯指標로서 成立된다. 이들 指標는

4) 日本 附加價值會計特別委員會 第3回 報告「企業會計」, 中央經濟社, 1976年 7月 pp. 121~127

豫定·實績比較 및 實績相互比較를 통하여 經營管理에 도움을 줄 것이다.

1. 生産關聯指標

生産關聯指標는 企業의 附加價值生産性を 測定·分析하는 데 有益한 諸指標를 말한다. 말할 것도 없이 現代의 企業은 그의 維持成長을 위해 必要한 利益을 確保하는 것이 最終目標이고, 그 達成度를 나타내는 것이 收益性的 指標이다. 그래서 收益性的의 밑바닥에는 附加價值生産성이 있고 이의 向上시킨 結果로 얻어진 附加價值的 增加가 企業利益의 源泉이 된다. 따라서 企業利益의 基底에는 附加價值가, 收益性的의 基底에는 附加價值生産성이 存在한다.

이러한 生産關聯指標 중 가장 重要한 것은 附加價值生産性이다. 더욱이 附加價值會計에서는 生産要素로서 投入勞動을 重視하기 때문에 附加價值勞動生産性이 基本的 指標가 된다. 委員會가 報告한 生産關聯指標는 <表-4>와 같다.

<表-4>

生産 關 聯 指 標	算 定 方 式
附加價值勞動生産性	$\frac{\text{附 加 價 值}}{\text{投入勞動量(從業員數 또는 人件費)}}$
附加價值資本生産性 (資本附加價值率 또는 資本投資效率)	$\frac{\text{附 加 價 值}}{\text{投入資本額(經營資本 또는 設備資本)}}$
附加價值總合生産性	$\frac{\text{附 加 價 值}}{\text{投入勞動量+經營資本}}$
經營資本集約度 또는 勞動裝備率	$\frac{\text{經營資本額}}{\text{從業員數}} \text{ 또는 } \frac{\text{有形固定資産額}}{\text{從業員數}}$
附加價值率	$\frac{\text{附 加 價 值}}{\text{賣出額(生産基準)}}$

(參考) 附加價值勞動生産性的 分解

- 1) 資本集約度×資本回轉率×附加價值率
- 2) 資本集約度×資本生産性
- 3) 1人當 賣出額(生産基準)×附加價值率

2. 分配關聯指標

分配關聯指標는 企業에 대해서 利害關係를 갖는 諸集團에의 附加價值分配에 관한 分析을 위해 有用한 것이다. 分配關聯指標에는 從業員 國家 地域住民 出資者 債權者 등에 관한 附加價值分配率을 고려해서 이들 利害關係者에 대한 附加價值配分을 나타내는 諸指標로서 成立된다.

經營體의 生産·販賣活動過程에서 附加價值的 創出에 直接參加한 從業員 出資者 債權者 地主 등과 個別經濟의 活動에 間接的으로 혜택을 준 國家 및 地域社會에 대한 總附加價值的 配分率 및 配分額을 計算하는 것이 分配關聯指標의 計算目的이다. 이중 從業員에 대한 附加價值的 配分率과 配分額을 計算 分析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 委員會가 報告한 分配關聯指標는 <表-5>와 같다.

附加價值生産性と 附加價值稅

〈表—5〉

分配 關 聯 指 標	算 定 方 式
勞 動 分 配 率 勞 動 分 配 分	$\frac{\text{人 件 費}}{\text{附 加 價 值}}$ 附加價值×勞動分配率  (補足指標) $1\text{人當 人件費} = \frac{\text{人件費}}{\text{從業員數}} = \frac{\text{附加價值}}{\text{從業員數}} \times \frac{\text{人件費}}{\text{附加價值}}$ $= \text{附加價值勞動生産性} \times \text{勞動分配率}$ $\text{勞動分配率} = \frac{1\text{人當賃金} \times \text{從業員數}}{\text{附加價值}} = 1\text{人當賃金} \times \frac{1}{\text{附加價值勞動生産性}}$
社 會 分 配 率 社 會 分 配 分	$\frac{\text{租稅公課等}}{\text{附 加 價 值}}$ 附加價值×社會分配率
資 本 分 配 率 資 本 分 配 分	$\frac{\text{配當・利子・地代等}}{\text{附 加 價 值}}$ 附加價值×資本分配率

VI. 結 言

企業의 經營管理는 從來에 利益을 目標로 行하여 왔다. 그러나 오로지 利益만을 目標로 하는 經營管理는 오히려 그 目的達成을 困難케 하는 傾向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sup>5)</sup> 즉 從業員 消費者 地域 住民 政府當局 등의 諸利害關係者集團의 支持를 얻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利益指標에 重點을 둔 經營管理라 할지라도 그의 缺點을 補完해야 한다. 附加價值指標는 그러한 缺點을 補充하고 是正하는 役割을 擔當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有用한 것이다. 즉 經營管理에 있어 利益指標와 附加價值指標의 兩者를 導入하여 企業의 營利性과 社會性을 잘 調和시킴으로써 長期的인 企業發展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附加價值分析은 重要한 經營管理技法이다.

以上과 같은 附加價值的 概念 目的 分析方法의 重要性을 看過한 채, 오로지 附加價值稅 自体에만 觀心을 集中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여하튼 附加價值稅의 實施를 새로운 契機로 삼아 水産經營者는 附加價值的 本來的 意義를 再認識하여 積極的으로 附加價值分析技法을 導入시켜 어려운 經濟的 與件을 打開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Horngren, C. T, Accounting for Management Control (N. J. : Prentice-Hall, Inc., 2nd ed., 1970) P. 358

General Electric 會社는 다음과 같은 多元的인 企業目標를 세우고 있다.

① 利益性 ② 市場占有度 ③ 生産性 ④ 製品主導力 ⑤ 人力開發 ⑥ 從業員態度 ⑦ 公共責任  
⑧ 短期目標와 長期目標와의 均衡